

一〇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○ 저회가 차별하고 안디옥에 이르러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주
 一一 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하여 굳게 하고 열마
 一二 〇 있었다 형제들이 차별하고 보내던 사람에게로도 보내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유하며 여러 형제
 一三 들과 같이 주의 말씀을 가르쳐 전파하더라 ○ 수일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
 一四 전한 자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보자 하니 바나바가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
 一五 한대 바울은 마가가 이전에 밤빌리아에서 저화를 떠나 한가지로 일하려 가지 아니하므로 데리고 가는 것
 一六 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
 一七 울은 실라를 택하여 같이 가니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주께 은혜를 빌거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녀가
 一八 피 여러 교회를 굳게 하더라

一六 바울이 또한 데베와 루스드라에 이르매 거기 디모테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모친은 믿는 유대여
 一七 인이요 부친은 헬라사람이라 이 사람은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여러 형제에게 칭찬받는 사람이니
 一八 바울이 데리고 가고자 할새 그 지경에 있는 유대인을 인하여 핍박을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다 그의
 一九 부친은 헬라사람인 줄 알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에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의 작정한 명령
 二〇 을 저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그러므로 여러 교회가 믿음에 더 굳어지고 사람의 수가 날마다 더하더라 ○
 二一 성신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말라 하시거늘 브루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
 二二 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하여 애쓰되 예수의 신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
 二三 려가더니 밤에 바울이 이상함을 보니 마게도나 사람 하나가 서서 간절히 빌어 가로되 마게도나로 와서

一 이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이 이상함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나로 가고자 함은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부
 二 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심을 알리라 ○ 드로아를 떠나 배 타고 바른길로 사도드라게로 가서 이튿날
 三 네입물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빌립보는 마게도나 지경 첫 성이니 또 로마의 점령한 땅이라
 四 이 성에서 수인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성밖에 나가 강가에 이르러서 생각컨대 거기 기도하는 곳이
 五 있는가 하여 앉아서 모인 여인에게 말하더니 두아디라 성 여인이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루디아라 자주장사
 六 를 하며 본래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인데 우리 말을 듣더니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수종종하
 七 게 하신지라 저와 그 집사람들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간구하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
 八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더라 ○ 그 후에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갔다가 한 제집중을 만
 九 나니 점하는 사귀가 들려 점으로 그 주인을 크게 이하게 하더니 바울과 우리를 좃아 와서 소리질러 가
 一〇 로 되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니 구원하는 도를 너희에게 전한다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
 一一 지라 바울이 심히 근심하여 몸을 들이켜 사귀더러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
 一二 니 이 집에게서 나오라 하니 사귀가 즉시 나오는지라 ○ 종의 주인이 이를 바라는 것이 끊어진 줄 알고
 一三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저자에 들어가 유사를 보고 법관에게 끌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유대인인데
 一四 우리 성을 심히 욕망케 하여 우리 로마사람이 마땅히 받지 않고 행치 아니할 법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
 一五 가 일제히 일어나 송사하니 법관이 옷을 벗기고 곤장으로 치라 하여 곤장으로 많이 친 후에 우에 가두고
 一六 사장이에게 분부하여 착실히 지키라 하니 사장이가 이 영을 받아 고문은 우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채
 一七 었더니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간한 사람이 듣더니 홀연히 크게 지진